



택배물량
연간 60억건
1인당 110건 이용
L1



Life

글로벌 빅파마
비만 신약개발 속도
경구용 신제품 예고
L2



뛰어난 연비·튼튼한 자율주행 기능... “장거리 운전이 최고”



자동차 시승기

르노코리아 ‘그랑 콜레오스’

중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시장에서 신흥 강자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는 차량이 있다. 지난해 하반기 출시된 르노코리아의 그랑 콜레오스다. 특히 그랑 콜레오스 이-테크(E-Tech) 하이브리드는 연비와 가격 경쟁력, 동급 차량에서 찾아보기 힘든 신기술들을 앞세워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그 결과 그랑 콜레오스는 출시 7개월이 된 지난 3월까지 3만3000대가 팔리면서 중형 SUV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그랑 콜레오스 E-Tech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고 1박2일 동안 여행을 떠났다. 광명에서 출발해 영덕·대구를 거쳐 다시 광명으로 도착하는 코스였다. 광명 도착 후 계기판을 바라보면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출발 전 계기판에는 820km가 주행가능하다고 표시되어 있었다. 1박2일 동안 총 1020km를 주행했지만 광명 도착 후 계기판에 표시된 남은 주행가능거리는 72km였다. 놀라운 사실은 여행기간 중 주유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랑 콜레오스의 연료 탱크는 55L로 주유를 가득했을 시 약 860km 정도가 공인 연비로 주행가능 거리지만 실제 주행하게 되면 1000km 정도는 거뜰하게 달린다. 그야말로 ‘연비갑’이다.

그랑콜레오스 E-테크 하이브리드는 동급 최고 수준인 245마력 시스템 출력으로 파워풀하면서도 전기차의 장점을 결합해 높은 연비가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100kW 구동 전기 모터와 60kW 고전압 시동 모터로 이루어진 듀얼 모터 시스템인 동급 최대 용량의 1.64kWh 배터리를 탑재했다. 넉넉한 배터리 용량 덕분에 전기 모터만으로도 장거리 운행이 가능해 공인 복합연비는 15.7km/L(테크노 트림, 19인치 타이어 기준)로 동급 최상의 연비 효율을 자랑한다.

시승에서도 도심 주행 시 13~14km/L, 고속도로에서는 18~19km/L까지 나왔다. 도심에서는 전체 주행거리의 최대 75%까지 전기모드 주행이, 고속도로에서는 가솔린 엔진 대비 최대 40%의 연료 절감 효과를 보이면서 실질적인 연비 개선을 느낄 수 있었다.

장거리 주행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한 기능은 자율주행 모드다.

그랑 콜레오스는 자율주행 레벨2 수준의 최첨단 주행 보조 기능을 기본 탑재, 만족스러운 자율주행을 기능을 선사하면서 합격점을 받을 만했다.

핸들 왼쪽에 위치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율주행 모드인 ‘액티브 드라이버 어시스트’가 활성화된다. 조작법이 단순해 고속도로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최소 속도 설정은 30km로 버튼을 위로 길게 누르게 될 경우 5km 단위로 올라가게 된다. 주행 중 안전상의 이유로 160km까지만 올려봤지만 안정감있는 주행을 보여줬다.

‘액티브 드라이버 어시스트’ 활성화 시 ‘자동 속도 제한 보조’도 함께 활성화가 되면서 주행 시 속도 제한 정보를 인식해 차량의 속도를 자동으로 조정해준다. 특히 ‘액티브 드라이버 어시스트’ 기



르노 그랑콜레오스 외관.

/르노코리아



르노 그랑 콜레오스 내부 모습.

/르노 코리아



고속도로 구간단속 구간에서 ‘액티브 드라이버 어시스트’ 활성화 후 주행하고 있는 모습. /이승용 기자

55L 주유 시 실제 1000km 정도 주행 가능
245마력 시스템 출력으로 연비 최대강점
듀얼모터 시스템·동급 최대 용량 배터리

자율주행 레벨2 수준 ‘최첨단 주행 보조’
‘액티브 드라이버 어시스트’ 기능으로
구간단속·도심정체 때 운전자 피로도 ↓

오픈알 파노라마 스크린 디스플레이
음성인식 시스템 ‘아리’ 통해 대부분 조작

능은 구간단속 지역에서 운전자의 피로도를 낮춰 줄 수 있다. 제한속도를 설정하면 설정된 속도까지만 속력을 내기 때문이다. ‘액티브 드라이버 어시스트’는 도심 정체구간에서도 효율성 있게 사용이 가능했다.

또한 540° 카메라를 통해 차량 주변 및 차체 아래 도로 안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클리어뷰 트랜스퍼어런트(Clear View Transparent) 새시’ 기능이 적용됐다. 이는 국산차에 처음 적용된 기능으로 불안정한 도로 상황에서도 운전자가 주변 환경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지원장치이다.

운전석에서 동승석까지 이어지는 3개의 12.3인치 오픈알(openR) 파노라마 스크린 디스플레이가 있다.

센터 디스플레이는 각종 편의장치 조작은 물론 그랑 콜레오스의 모든 기능을 제어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자주 쓰는 주요 기능들은 디스플레이 하단부에 물리 버튼이 따로 나와 있어 화면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그랑 콜레오스에 탑재된 음성인식 시스템 ‘아리’를 통해 대부분 기능 조작이 가능하다. “아리아 에어컨 3단계로 켜줘”, “아리아 통풍시트 2단계로 켜줘”, “아리아 목적지 00로 바꿔줘” 등을 칩



오토파킹 기능을 통해 자동 주차를 하고 있는 모습. /이승용 기자

척 알아들었다.

장거리 운행에도 딱딱한 현대·기아차의 시트와 달리 그랑 콜레오스는 부드럽고 폭신해 허리와 운전 피로도가 훨씬 적었다.

1박2일간 주행하면서 느낀 르노 그랑콜레오스는 출·퇴근 직장인들과 가족의 패밀리카로 아주 적합한 차량이었다.

그랑 콜레오스의 판매가격은 개별소비세를 적용할 경우 이테크 하이브리드는 ▲테크노 3760만 9000원 ▲아이코닉 4154만9000원 ▲에스프리 알핀 4351만9000원이다. 2.0 가솔린 터보는 ▲테크노 3442만원 ▲아이코닉 3827만원 ▲에스프리 알핀 4038만원 ▲에스프리 알핀 4WD 4304만원이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 김혜성, 빅리그 데뷔 ‘첫 선발 출전’... 멀티 안타에 도루까지 /사진 뉴시스
▲ 이강인, 올여름 이적하나... SNS 프로필서 PS G 삭제

▲ 알렉산더아널드, 리버풀 떠난다... 레알 마드리드행
▲ 손흥민 복귀 불투명한 토트넘... 매디슨 ‘시즌 아웃’ 약재

▲ 역도 이하은, 세계주니어선수권 여자 최중량급 합계 3위
▲ ‘박주봉호’ 배드민턴 대표팀, 수디르만컵 준우승 이후 귀국